

어렸던 왕자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 어린왕자 中 생텍쥐페리 저

따뜻한 바람, 이라고 칭하기에는 약간 싸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 말라가던 나뭇가지에 잎이 돌아나는 것으로 대비를 주는, 그렇기에 돌아나는 생명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계절. 동시에 왕자와 같은 어린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왕자는 창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며,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이네. 선선해서 기분이 좋아.”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반의 사물함을 여는 시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교문에 발을 들이는 시기.

물론 이 선선함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더위로 바뀔 것이 분명했지만, 왕자에게는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운 것은 또 더운대로 나뭇의 의미가 있을 것이기에. 모든 계절이 저마다의 의미를 품고 있으니,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곱씹는 것이 계절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왕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른들은 그런 예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간 계절의, 그리고 지금의 계절의 의미를 곱씹기 보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계절에만 신경을 쓰는 듯 보이네요.

“가을이구나.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곧 겨울이네. 난방비가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요. 지금의 계절의 아름다움을 찾기는 커녕, 다가올 계절의 걱정거리만을 콕 찢어서 걱정하는 모습. 계절에 대한 예의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왕자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어린 아이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요? 왕자는 어리기에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른이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 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계절에게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삶이란 얼마나 무례하고 지루한 삶이겠습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밋밋한 삶이겠습니까.

모든 어른은 처음에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3월은 새로운 사물함이나 새로운 교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있어 이번 3월은, 새로운 교문에 발을 딛는 시기가 되겠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학교는 대부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배정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소한 같은 동네 살던 이들만 모이던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사는—혹은 그보다 더 멀리 사는—모든 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왕자는 새로운 교문에 발을 디디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는 듯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그 모든 것을 만난 계기가 될 학교가 왕자의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물론 긴장도 되기는 하지만, 그 미약한 긴장감은 새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행복함에 가려진 듯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갈 준비를 모두 마친 왕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 창가에 놓여진 화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자가 사랑해 마지않는, 그 장미가 있는 화분에.

“잠시 여행을 다녀올게.”

물론 당연하게도, 또한 비극적이게도. 장미에게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던가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지조차 없는 저 장미가 왕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적어도 왕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직접 가는 것,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모든 것이 왕자를 설레게 만들었으니까요.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고 계시는 청소부분께 인사를 드린 왕자는, 습관적으로 가방끈을 붙잡은 뒤 엄지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쓸어 내렸습니다. 왕자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죠. 왕자를 오랫동안 보아온—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자잘한 습관이었습니다.

왕자에게 배정된 반은 6반. 번호는 12번이네요. 학번으로 따지면 1612가 아닐까, 하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때까지 왕자가 다닌 학교는 전부 학번이 네자릿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자는 직후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반이 있네?”

맏소사, 하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10반을 알리는 표지판을 바라보며 잠시 굳어있던 왕자는, 이내 그것이 어떠한 착각이나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예비 소집 때도 이렇게 끝 쪽 계단을 통해 왔다면 모를까. 중앙 현관을 통해서 왔던 예비 소집 때 10반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왕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동시에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던 왕자의 기대감을 완전히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왕자는 그 깨달음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내었습니다.

“...내 학번은 1612가 아니라, 10612가 되는 건가?”

그럴싸하다, 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반이 두 자릿수까지 있으니 학번에서 반이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 두 자릿수일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그나저나 하필 배정받은 학번이 612... 참으로 어린 왕자 다운 숫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야.” 중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스케일이 큰 왕자의 새로운 여행지.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수많은 정보들의 향연에 왕자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런 왕자의 입가에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왕자를 들뜨게 했기에.

“좋습니다. 첫 날부터 지각한 학생은 없겠죠?” 그리 말하는 선생님을 보며, 왕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이 거리감은 무엇일까요?

“…괜찮지 않은 선생님.”

그렇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왕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총 9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항상 ‘괜찮은’ 선생님만 만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 앞에 있는 선생님은 ‘괜찮지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왕자의 표현 방식을 빌려보자면… 너무나 어른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며 어렸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만, 늙어버린 자신만의 별의 주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조차 없는 고립된 왕. 그것이 제가 내리는 평가였습니다. 왕자는 제가 내린 평가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탄지를 걸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차마 제 말을 부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왕자는 무어라 말을 하는 늙은 왕에게서 시선을 돌려 옆자리의 아이를 바라보—

“…뭘 봐?”

—려다가 고개를 돌려서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짝꿍은 조금 까칠한 것 같네요. 물론 짝꿍이 까칠하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새로운 것을 받기는 왕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슬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는 이전처럼 대놓고 보는 것 보다는, 결눈질을 하며 옆자리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여우를 보는 듯한, 날카롭고 까칠한 아이. 타인과의 관계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왕자가 결눈질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걸까요. “…하아. 할 말이라도 있어?”라며 여우가 먼저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인연인데 대화라도 해볼래?”

“…관심 없어.” 여우는 이 상황이 매우 귀찮기라도 한 듯, 자신의 갈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자세가 익숙한 것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 모양이네요.

왕자는 대화를 할 유일한 연결점인 ‘짝꿍’에 초점을 맞춰 여우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한 동안은 짝꿍이지 않겠냐는 논리였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한동안 짝꿍일텐데.”

“자. 일단 지금 번호순이니까. 자리를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왕자는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짝꿍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요.

“…푸흠.”

왕자의 말에 무언가 웃긴 부분이라도 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여우에게는 웃겼던 것일까요? 여우는 옆자리에 있는 왕자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왕자는 모처럼 얻어낸 긍정적인 반응에 환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웃는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야! 우린 친구가 된 걸까?”

“아니. 아마 아닐걸.”

이러한 그들의 만남은 왕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랜덤한 번호를 뽑아 자리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돼?”

“이것도 인연인데 대화라도 해볼래?”

“하아...”

정말 우연히 그들이 다시 한번 짝꿍이 되며, 그들의 만남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말이죠. 왕이 떠드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할 때 까지 계속이요. 어른의 개입에 의해 강제로 끝나버린 그들의 대화였지만, 대화가 끝나기 직전 여우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웃는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늙은 왕은 화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화학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왕자였으나, 화학이라는 과목은 2학년이나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자는 때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선생님들을, 새로운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만 끝내고 휴식 시간을 준 사회 선생님, 얼핏 보면 중요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을 간단하게 넘기는 체육 선생님, 막 고등학교로 올라온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수학 선생님. 이들을 모두 지난 뒤 찾아온 4교시에, 왕자는 새로운 ‘어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한 여러 대화들로 인해 긴장이 풀린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탓에 그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지 못했고, 그것을 본 선생님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뭐. 인사 안 하니?” 쓰고 있던 모자를 들어 올리며 말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그제서야 곳곳에서 작은 인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쓰고 있던 모자를 잠시 매만졌습니다.

“그래. 뭐, 첫 날이니까. 다음부터는 인사 제대로 하고.”

—어른이다, 라고 왕자가 짧은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물론 왕자가 이전에 봐왔던 선생님들도 당연한 어른이지만, 저 선생님은 특히 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요. 굳이 저 어른에게 이름을 붙여보자면...

“허영꾼.” 스스로를 찬양하는 말로만 이루어진, 허영심으로만 가득찬 어른. 왕자와는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중얼거린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여우를 뒤로 한 채, 왕자는 영어책을 꺼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혹은 유감스럽게도—허영꾼의 직업은 영어 교사였기에 자신의 할 말만 내뱉는 허영꾼의 성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저렇게 자신을 띄우려고 하는 걸까?” 왕자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허영꾼을 뒤로 한 채 여우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필기나 해. 어떻게 첫 시간부터 수업이지?”

물론 첫 시간부터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귀찮음을 느끼는 여우에게 가뿐히 무시당했지만요. 여우는 허영꾼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찻찻한 기분을 떨쳐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

었습니다. 왕자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허영심이라는 나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왕자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다.

3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슬프게도 왕자와 어른들은 무언가의 인연이라도 있는지, 다른 학생들보다 유달리 어른들에게 불려가는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여우가 왕자를 보고 “선생들 심부름꾼”이라고 칭할 정도로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늙은 왕이 어린 왕자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큰 지분을 차지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휴, 왔습니까? 이것 좀 3층 교무실에 가져다 줘.”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려서 일을 시키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 거절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3층, 즉 2학년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읽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서류를 지리 선생님에게 가져다주어야 하였으니깐요.

“지리 선생님 계시나요?” 2학년 교무실에 도착한 왕자는 조심스럽게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야. 왜 왔어?”

왕자는 아무 말 없이 품에 있는 서류를 선생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리 선생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은 뒤, 품에서 또 다른—이번에도 왕자가 이해할 수 없는—서류를 꺼내서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화학쌤한테 가져다 줘.”

그리 말한 뒤, 지리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등을 돌려 교무실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지리 선생님의 자리에 여러 풍경이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말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여러 풍경들이요.

“이 사진들, 직접 찍으신 건가요?”

그 사진들을 보고 흥미가 동한 왕자는 지리 선생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직접 찍었다는 건, 이 사진들의 장소를 직접 가봤다는 뜻이니깐요. 새로운 것 만큼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왕자에게 있어 이런 장소들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 이거?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sup>1)</sup>이라는 곳이야. 들어 봤지?”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다, 하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사진으로 봐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가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나는 여기에 가본 적 없어.”

“네?”

그렇다면 사진은 어째서 걸려 있는 거지? 하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직접 찍은 것도 아닌 사진을 굳이 걸어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사진에 한 눈이 팔려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지만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른. 지금 어린 왕자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어른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른. 누군가가 본 풍경을 글로 다시 확

---

1) 미국 애리조나 주 북서부 고원지대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 미국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

인하는 것뿐인 자칭 지리학자.

왕자는 이번에도 제가 칭한 호칭에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했지만,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 보다 지리학자가 말을 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이런 곳에 갈 시간도 돈도 없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곳에 굳이 갈 필요도 없고.”

“직접 가보지 않았음에도 ‘알고 있다’고 칭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다. 일단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왕자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왕자는 지리학자에게 짧게 인사한 뒤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른이 되버려 꿈을 꾸는 것조차 포기한 뒤,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지리학자. 가보지도 않은 곳의 사진을 붙여둔 것은 잃어버린 어릴 적 꿈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왕자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왕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왕자의 마음 한 구석에, ‘현실’이라는 나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4

왕자는 여우와 함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하교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왕자는 매일 같이 여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우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닌 우연히 같은 방향에 있는 학원을 향해 가는 것이었지만, 왕자에게 그건 딱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냐고? 읽을 시간이 있어야 뭘 읽던 말던 하지.”

“인생을 살면서 책 하나 읽을 시간이 없지는 않았을걸.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발상을 못했던 거지.”

부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여우는 짧은 침묵으로 왕자의 말을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우가 이런 대화에 어울려 준 적이 별로 없었기에, 왕자는 눈을 빛내며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책에 관심이 있어?”

“...약간. 진로를 그 쪽으로 생각하—”

“잘 됐네! 내가 몇 가지 추천해줄까?”

직업, 진로. 그런 이야기는 왕자에게 있어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여우가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아닌,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기에 왕자는 정말 오랜만에—어쩌면 처음으로—누군가의 말을 끊으며 자신의 말을 이었습니다.

“허어. 네가 그렇게 열정적인 건... 음.”

여우는 잠시 감탄하다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입을 닫았습니다. 하긴, 저라도 말문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왕자가 언제 열정적이지 않았던 적이 있기에 한가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흐음. 무슨 책이 좋을까.”



“적당히 추천해 줘. 언제 읽을 지도 모르겠거든.”

왕자는 고민하는 시늉을 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책을 고른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뻔한, 하지만 뻔하기에 더욱 왕자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ய요.

“『어린 왕자』<sup>2)</sup>.” 너무나 뻔한 이름이 왕자의 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뭐야, 그 고리타분한 소설은.”

흐음, 확실히 고리타분하기는 하네요. 고전 명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매일 같이 어린 왕자 타령을 듣는 제 입장에선 고리타분이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고리타분이라니!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말로 어린 왕자를 까내리지 마!”

저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여우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상황을 보면 저한테 하는 말인 듯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우는 제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말’이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여우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늘어 보였나.”

“응? 딱히 늘어 보이지는 않아! 단어 선정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이런. 결국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말이 비수가 되어 여우에게 꽂히는 장면이 눈에 보이는 듯하군요. 결국 여우는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이에게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 쉽게 말해 빠진 상태로 앞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우를 길들이기에는 왕자의 배려가 부족한 모양이네요.

“...조용히 해.” 라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행성의 주인 되는 명령에, 저는 더 이상 왕자를 놀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잠시 조용히 걸으며, 앞에서 걷고 있는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진로’가 무엇이길래, 읽을 시간도 없던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진로가, 직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왕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진로’라는 개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학원에 들어가는 여우를 배웅한 뒤 계속해서 걷던 왕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적당히 크고 적당히 작은 자신의 집예요.

“.....”

이런, 아무래도 제가 서술을 잘못된 것 같군요. 이 집은 왕자가 사는 집은 맞았지만, ‘왕자의 집’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이 별의 주인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왕자는 익숙한 듯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안. 흐르는 냉기는 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리는 듯했지만, 왕자에겐 그 냉기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왕자는—달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아무도 없어보이는 어둠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왕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업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얼마를 썼나.” 왕자는 오늘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였으면 모를까 오늘은 여

---

2) 프랑스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소설. B-612 소행성에 살고 있는 소년이 여행을 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작품.

우와 대화하며 걸어온 덕에, 매일 사용하던 버스비나 택시비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실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사업가는 평소에 하던 일장연설 대신 짧은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들어가라.” 그 말에 따라, 왕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 자신의 소행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가는 어른이었습니다. 돈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돈을 모으되 사용하기를 꺼리는 그런 어른이요. 돈의 소중함은 왕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업가 만큼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업가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에게는 돈을 모으는 목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돈을 모아 집을 산다. 돈을 모아 차를 산다. 이러한 목표가 전혀 없는, 오로지 ‘돈’이 목표인 어른. 왕자의 말을 빌려보자면...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 이라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지만, 사업가는 그 정도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주식이니 주가니 하는 말들은 왕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글자였지만, 사업가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자는 말했습니다. “역시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는 왕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돈이라는 나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 5

“정장은 어째서 입는 걸까?” 라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아침 산책 중 갑자기 멈춰 서서 내뱉을 만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왕자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왕자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1%를 제외한 99%가 똑같이 생긴 정장을 입은 상태로요. 항상 보던 풍경이지만 왕자는 갑작스럽게 그것이 궁금해진 모양입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었다면 인터넷 따위를 뒤져 정보를 찾아냈겠지만, 왕자는 이미 정답을 알 수 있는 정답지를 놓고 다른 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장은 왜 입는 건가요?” 정말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저 출근을 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왕자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회사원 역시 당황한 듯,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왕자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왕자의 사회성이 증가하지는 않았기에, 왕자는 그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려면 정장을 입어야 하니까.”

“회사도 학교처럼 교복 같은 걸 입어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당연하지. 애초에 교복을 입는 이유가 정장에 미리 익숙해지기 위해...”

“정말로 ‘규칙’에 명시되어 있나요?” 조금 무례하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자는 회사원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왕자가 보기에는 이들은 규칙에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하려는 이상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 회사원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쾌해서 하는 침묵이 아닌, 어떠한 말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종류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할만한 말을 찾지 못한 회사원은, 약간 피곤한 표정으로 왕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규칙은 없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칙은 사회에 새겨져있지.”

“사회예요?”

“응. 옷보다는 지식이나 성품이 중요한데, 참으로 어이가 없지.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이란 건 무시할 수 없는 거야.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하는 발표는 높으신 분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건넨 것 치고는 정말 수준 높은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같은 것은 어린 왕자가 알기에는 너무나 힘든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자는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채, 등을 돌려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을 향한 인사도 빼놓지 않고요. 하지만….

“정장은 꽤나 멋진 옷이라고 생각해. 생긴게 멋지잖아.”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왕자가 내뱉은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를 치장하는 허영꾼이나 내뱉을 법한 말.

왕자의 마음 한 구석에 있던 허영심이, 바오밥나무로 성장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른과 정장에 대한 토론을 끝낸 어린 왕자는, 이번에는 주말의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자신과는 다르게 가방을 매고 학교로 들어가는 몇몇 학생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도 학교에 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잠시 바라보던 왕자는, 이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

글쎄요. 진로나 직업이나, 그런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는 싫어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미래의 ‘꿈’이 아닌 ‘장래 희망’에는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왕자에게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자는 잠시 학교를 바라보더니, 이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왕자. 어째서 청소부분께 인사를 드리지 않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무의미한 일일지라도, 청소부분께는 그분만의 철학이나 철칙이 있을 겁니다. 예의를 지켜야지요. 마치 길가의 가로등을 키는 행위와 같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왕, 허영꾼, 사업가가 점등인을 어리석다 칭하더라도, 어린 당신만큼은 점등인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왕자에게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자는 계단의 손잡이를 닦고 있는 점등인을 지나쳐 자신의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반에는 6명 남짓의 학생들이 책에 얼굴을 처박고 무언가를 쓰거나 풀고 있었습니다.

“안녕.”

“…뭐야. 너도 주말에 왔었나?”

그리고 그 곳에는 여우도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수많은 글자들이 나열된 듯 보이는 책들을 펼쳐둔 채로요.

왕자는 말했습니다.

“어째서 공부를 하는거야?”

그러자 여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꽤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하기에 한다. 왕자는 이 말을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기억나지 않았던 터라, 왕자는 조용히 그 기시감을 묻어두었습니다. 왕자는 재차 질문했습니다.

“미래에는 뭘 하고 싶어?”

꿈이 있느냐, 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미래에 하고 싶은, 혹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왕자에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쎄. 일단 돈부터 벌고 생각해야지.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우에게는 ‘꿈’이 아닌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진 듯 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동화책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참고서가 더욱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왕자의 마음 속에 심어졌던 ‘현실’이라는 바오밥나무를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왕자는 이번에는 꽃가게로 향했다. 자신의 장미를 처음 만났던 꽃가게로. 딱히 의미는 없었다. 그저 갈 곳이 없었기에, 그저 산책을 목적으로.

꽃 가게의 주인은 이전에 장미를 사갔던 왕자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꽃을 사러 왔냐며 왕자를 반겨주었다. 딱히 꽃을 살 생각은 없었던 왕자였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나니 약간의 흥미가 생긴 듯 했다.

“장미꽃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장미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럭저럭요.”

왕자는 가게 주인을 따라 꽃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말 ‘수 많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피어있는 장미꽃들이 있었다. 왕자는 허리를 약간 숙여 자라나있는 장미들을 손으로 쓸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예쁘네요.”

“글쎄. 꽃을 파는 입장이지만 나는 잘 모르겠네.”

“어째서죠?”

가게 주인이 어째서 꽃집을 차린다는 선택을 했는지 왕자는 알지 못했다. 그저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꽃집을 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의지도 없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꽃집의 주인이 꽃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

왕자는 그렇기에 질문했고, 가게의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들은 팔리기 위해 자라난 꽃들이야. 사랑을 받고 피어나지 않은, 그저 돈을 위해 자라나게 한 꽃들이지. 나는 이 꽃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돈일 뿐이지.”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자신의 행성에 있을 자신의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꽃집에서 산 같은 장미. 차이점은 그 장미는 왕자 자신이 직접 키웠다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장미들은 가게 주인이 팔기 위해 키웠다는 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문득 이 꽃집에 있는 꽃들이 그다지 예쁘지 않게 보였다.

“그래도, 예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장미들은 충분히 예뻐다. 집에 있는 장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피어난 장미나, 돈을 목적으로 키워진 장미나. 어렸던 왕자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 속 ‘돈’이라는 바오밥나무가 자라났다.